

# 광주은행, 코로나에도 올 3분기 실적 성장

### 누적 순이익 1485억 전년비 6.3% ↑ ...내실 경영·고객밀착 성과 "2023년엔 2400억 달성"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둔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 3분기 경영성적이 개선됐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은 올해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은 13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정책대출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쌓은 일회성 충당금 추가적립액 142억원(세후 손익효과 10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3분기 순이익은 1485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1397억원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다.

광주은행은 순이자마진(NIM) 역시 2.24%로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 0.41%, 연체 비율 0.37% 등 은행권 최고 수준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광주은행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취임 3주년을 맞은 송중욱 은행장이 평소 강조



하는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실천해온 광주·전남지역 밀착경영과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을 통해 내실 있는 실적 성장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광주은행은 잇단 공공금고 유치전

에서 시중은행을 제치고 광주시 1급고·전남도 2급고·순천시 2급고 등을 따냈다.

시중은행과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이번 지역 금고 유치전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기여,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용편의성 등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점포가 임차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1층보다 높은 층으로 이전하는 추세지만, 광주은행 영업점 5곳 중 3곳(60.6%·89개)은 1층에 분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점포의 1층 이전은 문화전당지점과, 남구 진월동, 순천연향동 등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9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설된 점포는 6곳이다. 영업점 수는 145개점이며, 광주·전남 117개, 수도권에 28개 지점이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4분기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오는 2023년 당기순이익 2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경영방침과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객중심경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수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달 말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1만6373건, 7496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는 각각 1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원 출연했다.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 수상,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 활성화 기여 등 성과도 거뒀다.

송 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고객중심·지역밀착경영을 토대로 포용금융을 실천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자체 금고 선정 결과에 따라 조밀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공공자금을 기업 및 지역민에게 집중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민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6.67 (-18.59)	↑ 금리(국고채 3년)	0.927 (+0.013)
↑ 코스닥	813.93 (+7.73)	↑ 환율(USD)	1131.40 (+0.80)

## '배추 금값'에 재배면적 5년만에 최대

### 전남 3349ha...전년비 25.6% 증가

올해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남 가배추 재배 면적이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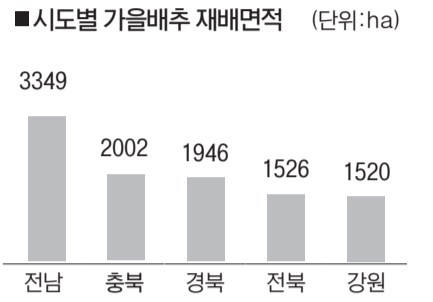
29일 통계청의 '2020년 가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배추 재배면적은 전남 3349ha·광주 58ha로, 1년 전보다 각각 25.6%(683ha), 41.5%(17ha) 증가했다.

전남 재배 면적은 지난 2015년(3349ha) 이후 3021ha(2016년), 2936ha(2017년), 3244ha(2018년), 2666ha(2019년) 등 오르락내리락하다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재배면적은 시도별로 보면 전남(3349ha)이 전체(1만3854ha)의 24.2%를 차지하며 가장 컸다. 이어 충북(2002ha), 경북(1946ha), 전북(1526ha), 강원(1520ha) 등 순이었다. 전체 재배 면적은 1만3854ha으로, 지난해 1만968ha보다 26.3%(2886ha)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8.0%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통계청은 가배추 재배면적 증가의 가장 큰 이유를 배추 가격 상승으로 꼽았다. 가격이 오르자 농가에서 배추 재배를 늘렸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1kg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8년 928원에서 2019년 764원으로 내려간 뒤



올해 1335원으로 올랐다.

무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는 3.7%(-196ha) 줄었지만, 전남은 5.3%(42ha) 증가했다.

올해 전국 가배추 재배면적은 5147ha로 지난해 5344ha보다 3.7%(196ha) 감소했다.

무 가격도 상승했으나 가배추 파종 시기에 긴 장마와 태풍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배추 재배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남 재배면적은 838ha로, 전년(796ha)보다 5.3%(42ha) 증가했다.

가배추 가운데 총각무 면적은 140ha에서 25ha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일반무 면적이 656ha에서 813ha로 23.9% 증가했다.

광주 가배추 면적은 80ha에서 27ha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10월 소비자지수 '경중'

### 2009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10월 광주·전남 소비자지수가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0월 소비자지수(CCSI)가 88.9로, 전달보다 13.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국 지수는 91.6으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본부는 10월 지수는 지난 2월

(99.0)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 폭은 11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5월(16.7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현재생활형편CSI(77→84), 생활형편전망CSI(83→91), 가계수입전망CSI(87→91), 소비지출전망CSI(88→98)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됐다.

특히 소비지출전망 가운데 여행비 부문이 전달 59에서 이달 70으로, 무려 11포인트나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



유통기는 벌써 겨울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특매매장을 찾은 고객이 고가(프리미엄) 패딩의류로 꼽히는 '무스너'와 '노비스' 상품을 입어보고 있다. 이 매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중기 경기전망은 소폭 상승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86개를 대상으로 '11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77.2)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8.2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6.0)에 비해서는 7.8포인트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74.0)보다는 높았다.

이는 지난달 4개월만의 반등 이후 2개월 연속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에 해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월(71.7) 대비 5.6포인트 상승한 77.3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오히려 전월(87.3)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80.0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내수판매전망(74.1→76.9)과 자금사정전망(63.0→64.0)은 소폭 상승했고, 경상이익전망(68.8→68.0)은 소폭 하락했다. 수출전망(76.1→65.2)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추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 '상큼에' 무화과 연 매출 100억 돌파



### 출시 4년만에

전남 과실 공동 브랜드 '상큼에(사진)' 이름을 단 무화과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9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전남 공동 브랜드 '상큼에' 무화과 연간 매출액 첫 100억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상큼에는 전남도와 농협이 2016년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공동 개발한 단단위 광역브랜드다. 무화과 단일 품목 매출 100억원 돌파는 출시 4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지난 2017년 '상큼에' 브랜드를 단 무화과는 지난 한 해 71억4100만원 판매고

를 올렸다. 지난해 9월에는 '상큼에'의 대표 품목인 무화과가 전국 48개 매장을 둔 '립스' 식재료로 쓰이게 됐다.

'상큼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과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의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전남의 독자적인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본부는 2016년 브랜드 공모와 시민투표를 거친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디자인 개발과 서울·부산·대구·경기 등 전국적 판촉을 벌였다.

'상큼에' 브랜드는 단감, 무화과, 사과, 만감류, 배 등 취급 품목과 참여농가 수를 확대하고 출하량 증가와 출하품질 향상, 출하 지역과 참여 비율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